금수강산

4

주체107(2018)
루계 제344호 월간

 ISSN 1727-9062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꽃이 피네

2. 온 나라에 기계화 자동화의 불빛은 흘러가고
힘든 일 사라진 일터마다 기쁨이 넘쳐나네
(후렴)

3. 새 기술 새 과학 모두 배워 창조의 불길 높이니
주체로 빛나는 우리 조국 끝없이 번영하네
(후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며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안고온 해외동포예술인들이 환희의 꽃물결이 펼쳐지는 개막식장에 들어서며 조국의 어린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한껏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차 례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1월

모든것을 자기의 힘과 지혜로

오늘 세계의 관심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제재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에 집중되고있다.

조선에 대한 수십년간의 제재가 무의미하다는것이 실증되였다, 조선에 더는 제재할것이 없으며 이제는 제재항목이 바닥이 났다, 조선의 경제는 외부세계에 예속되지 않은것이며 이 나라에 압력을 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

세계가 평하고있는바와 같이 조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는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있다. 그 비결은 조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 인민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건설된 주체화되고 자립적인 경제이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 모든것이 파괴되고 경제건설에 많은것이 요구되던 그 시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크고 발전된 나라들의 원조에 의거하거나 그들의 경제를 모방하는 길로 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믿으시고,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자립경제의 길을 선택하시였던것이다.

생애의 전기간 공장과 농촌 등을 찾으시며 자립의 터전을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은 남들이 수백년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주체철생산

걸려 이룩한 공업화를 단 14년만에 완성하고 강력한 국방공업의 토대도 구축하였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쳤다.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에도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계속 힘있게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온 나라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여 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으키신 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이 땅에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추동하는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현대적인 기계들을 생산하는 기적이 창조되였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우리 식의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웠다. 나라의 굴지의 화학공업기지들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이 쏟아지는 경사가 일어났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조선로동당)의 현대화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이 바로 주체화이라고 이르시였고 어느 한 기계공장에 가시여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새 제품개발사업을 다그쳐야 생산에서 주체화를 실현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르시는 곳, 찾으시는 단위마다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우리의것을 창조할데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시고 생산공정과 설비는 물론 쏟아지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주체화를 실현하였을 때에는 그토록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꾸려진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있는 데트론인견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유연창대직기와 고온고압로라염색기 등을 가지고 가방용천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는데 생산공정의 주체화실현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평양화장품공장의 분장화장품직장에 있는 입상기와 류원신발공장의 《평양신발기계공장》이라는 명판이 새겨진 신발흐름선을 보시며 이런 설비를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그이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온 나라에 주체화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 식 현대화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였다.

평양곡산공장, 평양가방공장, 류경김치공장, 순천메기공장…

미국이 제재의 그물을 쳐놓고 그 무슨 효과성과 변화를 운운하고있을 때 조국인민은 공장들과 생산공정들, 설비들을 주체화, 현대화하여 자립경제의 기술적토대와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를 보다 완비하고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켰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의 궤도우에서 국방분야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주체화실현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결코 순탄한 환경속에서나 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언제인가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잘살고 강성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시련과 난관이 클수록 주체화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로선, 자력갱생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 일 화 ◇

거듭거듭 치하해주시며

주체106(2017)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의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이날 공장에서 김치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해 생산조직과 경영활동, 품질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은데 대해 치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생산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생산현장들에서는 여러가지 김치와 장절임 등이 끊임없이 생산되고있었다.

그 모습을 시종 환하신 미소속에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으니 운반과 절단, 절임, 세척 등 생산공정들에서 손로동을 극력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고, 정말 희한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일군들로부터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고도로 자동화, 로보트화된 이 설비들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의 로동계급이 제작설치하였는데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착상이 기발하며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다고 또다시 치하해주시였다.

이어 생산현장의 무균화, 무진화정형과 실험분석실상태, 제품견본실에 진렬된 갖가지 제품들의 가지수와 상표도안, 포장정형을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불과 반년사이에 류경김치공장이 지난해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지고 모든 생산공정들이 치차처럼 빈틈없이 잘 맞물려졌다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또 하나 일떠세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주체화된 공장의 모습을 두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거듭거듭 치하의 말씀도 해주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앞으로도 생산공정의 주체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본사기자

의 경제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시였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밝혀주신것이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온 나라 인민이 받들어나섰다.

금속공업의 주체화가 적극 추진되는 속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과학자들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식의 망간철생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강철생산계통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로 운영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합금강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가 이룩되였다.

금속공업부문만이 아니다. 기계공업부문과 경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을 주체화, 현대화하는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추세로 되고있다.

그러한 속에 설비와 연료, 자재의 주체화비중이 비할바없이 높아진 공장들과 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보기 좋고 질좋은 제품들은 인민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주체화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보며 인민은 확신하고있다.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해나갈 때 적대세력들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쥘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것은 조선로동계급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다.

로동계급의 벅찬 투쟁으로 하여 오늘 조국의 방방곡곡에서는 세계가 보란듯이 우리것의 령역이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땅속을 달리는 지하전동차도 우리 로동계급의 창조물이다.

우리 신발공업부문에서 생산한 《매봉산》, 《류원》상표를 단 구두와 운동신도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나오는 자재로 만든 상품들이다.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우리 식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이 오늘은 이 일터, 래일은 저 일터에서 잇달아 우렁찬 동음을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지금 우리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신발생산공정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완전히 주체화하기 위한 사업부터 선행시켜나가고있다.

원산구두공장에서는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재단실수률을 높일수 있는 레이자재단기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수입설비를 통채로 들어낸 자리에 평양신발기계공장 로동계급이 만든 신발흐름선을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멋지게 차려놓았다.

우리가 만든 설비들에서 신발이 쾅쾅 쏟아지자 생산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설비들이 더 좋다. 머리속에 남아있던 수입병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있다.

얼마전에는 우리 관리국의 신발연구소 연구사들이 사방압착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제작에 달라붙었다. 이를 통하여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가까운 앞날에 신발생산설비의 주체화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신발공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자면 국내원료와 자재는 물론 화학보조자재, 첨가제까지 우리 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각지 신발공장의 근로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달라붙고있다.

지난해 7월 전국신발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30여개 단위들에서 내놓은 9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우리의 자원에 의한 원료, 자재에 의거하고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와 질제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앞으로 한대의 설비를 기술개건하고 하나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도 철저히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주체화를 실현해나가는 사업에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가겠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신발공업뿐만이 아니라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도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좋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과 원료, 자재의 주체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주고있다.

나는 신발공업관리국의 일군으로서 생산자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주체화실현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생산성과들을 더 크게 마련해나가겠다.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국장 리송

주조기술을 우리 식으로

지난해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진행되였다.

축전장에는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공장, 기업소를 현대화하는데서 이룩된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그중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에서 내놓은 거품수지모형연소에 의한 진공주조기술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모형제작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세계적으로 앞선 주조기술로 인정되고있는 이 방법은 교류사의 사장 임완빈을 비롯한 연구집단이 완성한것이다.

처음 이 기술을 조국의 현실에 도입할 계획을 세웠을 때 그들은 지식도 경험도 없었다. 설계는 물론 야금공학과 재료공학을 비롯한 폭넓은 지식을 겸비하여야 하는 주조공학은 현장조건과 주물실천에서의 난문제들로 하여 전문공학자들도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분야였다. 더우기 주조기술을 주체적으로 확립하는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장 임완빈은 공학과 거리가 먼 사회과학을 전공한 일군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에 절실히 필요한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각오를 안고 탐구의 길에 나섰다.

선진주조기술의 원리로부터 그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비들에 이르기까지 파악하고 주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때로는 자재구입으로 먼길을 다녀올 때도 있었고 또 부어낸 주물품의 오작으로 손맥이 풀릴 때도 있었다.

그러한 나날속에 마침내 그들은 설비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각종 주강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그들은 이 성과에 토대하여 주조기술의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박정광, 강정철을 비롯한 청년연구사들은 새로운 진공주조공정에 필요한 중요설비들을 자체로 설계제작하고 주물모의 및 주물도설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척시켰다. 강영민을 비롯한 연구사들도 기술자들과 함께 거품수지모형연소에 의한 진공주조공정에서 기본인 모형제작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해나갔다.

세계에 도전하려는 그들의 사색과 탐구는 선진주조기술을 주체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로 될 내화도료연구에로 이어졌다. 리명일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연구를 거듭하여 값비싼 내화도료를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를 리용하여 질좋게 생산보장할수 있는 가치있는 결과를 얻어냈다.

뿐만아니라 주강, 주물품의 질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쇠물주입공정과 전용부압모래통의 부압조절방법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립하는데도 성공하였다.

현재 거품수지모형연소에 의한 진공주조기술은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그들의 연구사업은 계속되고있다.

모형제작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흠모의 마음어린 식물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국땅 곳곳에 갖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여나고있다.

이 꽃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해외동포들의 열화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조국에 뿌리를 내린 희귀한 꽃나무들과 화초들에서 피여난 꽃들도 적지 않다.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칭송하면서 자신들이 온갖 성의를 다하여 마련한 식물들을 그이께 삼가 드리였다.

그 선물식물들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주체71(1982)년 3월 30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도꾜녀맹본부에서와 주체79(1990)년 1월 24일 우즈베크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당시) 따슈껜뜨시에 살고있는 리천호동포가 글라디올라스품종들을 선물로 올리였다.

글라디올라스품종들은 붓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덩이줄기화초로서 원종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열대지역 및 지중해연안이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지부 서분회 고문 강덕룡은 주체78(1989)년 11월 19일 위인칭송의 한마음을 담아 마련한 노란열매불가시나무, 종려죽, 모과나무 등을 선물로 드리였다. 그는 주체81(1992)년 6월 19일에는 털단풍베고니아와 큰꽃철쭉, 별무늬변잎나무 등을, 주체82(1993)년 5월 26일에는 살진잎나무를, 주체82(1993)년 4월 13일에는 동백나무품종과 호랑가시나무를 비롯하여 많은 식물들을 선물로 올리였다.

강덕룡동포가 올린 털단풍베고니아는 베고니아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여러해살이식물이다. 잎은 단풍나무모양이며 변두리를 따라서 센털이 나있다. 잎은 오래동안 떨어지지 않고 빽빽하게 화분을 덮으면서 왕성하게 자란다. 꽃은 분홍색이다.

원산지가 남아프리카인 살진잎나무는 돌나물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떨기나무, 작은키나무이다.

줄기높이는 1~2m이다. 줄기와 가지는 굵으며 잎은 둥글고 잎겉면에 붉은 얼룩점이 있다. 나무모양이 보기 좋으므로 관상용으로 심는다.

감탕나무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넓은잎작은키나무인 호랑가시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나무높이는 3~4m이며 줄기는 곧추 자라고 나무갓은 길둥근 모양을 이룬다. 잎은 어긋나게 붙는데 두터운 가죽질이며 윤기가 난다. 꽃은 전해 자란 가지의 잎아귀에서 여러개씩 모여피는데 흰색이다. 열매는 9~10월에 붉게 익으며 다음해에 꽃이 필 때까지 나무에 달려있다.

불가시나무

동백나무

동백나무품종들은 차나무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넓은잎작은키나무이며 노란열매불가시나무는 잎이 사철 푸르고 노랗게 익은 열매가 오래동안 나무에 달려있으므로 매우 보기 좋다.

위대한 수령님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주체61(1972)년 4월 7일 동백나무품종과 호랑가시나무, 불가시나무 등을 선물로 드리였으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과학자대표단에서는 주체68(1979)년 3월 16일 동백나무품종을, 재중동포 고귀자는 주체75(1986)년 8월 5일 큰꽃군자란을 선물로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그윽한 향기가 넘쳐나는 꽃속에 모시려는 해외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이 어려있는 선물식물들은 그이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뜨거운 마음을 길이 전하며 세기와 더불어 온 누리에 더욱 만발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련 해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무늬풀

호랑가시나무

줄향나무나리

참관기

만경대와 더불어 길이 전할 이야기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뜻깊은 이날이 다가올수록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그이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찾고있다.

얼마전 만경대를 찾았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혁명일가분들의 투쟁력사를 보여주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사적관 1호실에 들어선 참관자들은 호실 정면에 모셔진 대형전광사진 《꽃피는 4월의 만경대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2호실에 들어선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에 대한 사적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모셔져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문은 소박하고 가난한, 평범한 가정이였지만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습니다.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남의 묘를 봐주는 산당지기를 하시였지만 나라를 사랑하시고 자제분들을 애국자로 키우시였으며 1866년 8월 미제침략선〈셔먼〉호가 대동강에 침입하였을 때에는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열렬한 애국자이시였습니다. 증조할머님이신 김씨녀사께서도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으시고 자손들을 혁명의 길로 떠밀어주시고 뒤받침해주시였습니다.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께서도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자손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의 길에 내세우시였으며 한생을 근면하게 살아오시였습니다.》

이어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한생은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 견결한 혁명가의 한생이였다고 하면서 선생님의 투쟁업적과 관련한 내용들을 해설하였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어머님이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어머님과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신 삼촌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 동생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 사촌동생이신 김원주동지의 혁명생애를 보여주는 사적자료들을 보며 다음호실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3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년시절과 소년시기 애국적인 가정의 혈통을 이으시여 절세의 위인으로서의 사상정신적품격과 자질을 갖추어나가신 내용들과 사적자료들, 영상사진문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모님들로부터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발걸음을 옮기던 참관자들은 3.1인민봉기와 관련한 사적내용이 전시되여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유년시절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3.1인민봉기에 참가하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비운의 조국강산을 뒤흔들며 세계만방에 울려가던 독립만세소리는 자신으로 하여금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하였다고 하시며 3.1인민봉기는 자신을 인민의 대오속에 세워주고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첫 계기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참관자들은 절세의 위인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바로 만경대의 유년시절에 그 뿌리를 두고있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시였던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로정도가 새겨져있는 전자사판앞으로 향하였다.

《만경대를 떠나시여 이국땅에서 소학교를 다니시며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사회정치도서들과 신문 등을 읽으시면서 선진사상을 탐구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남아라면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뜻을 받드시고 12살 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고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였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시고 일제와는 사생결단으로 싸워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시며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시였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듣는 우리의 눈앞에는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고 하시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숭엄한 영상이 어려왔다.

뜨거운 격정속에 4호실에 들어선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14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피어린

격전을 승리적으로 이끄시여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고, 호실에는 나라를 찾으시고 20년만에 혁명일가분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는 영상사진문헌들이 전시되여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의 감격적인 화폭을 느끼게 하는 뜻깊은 영상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바라보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당시 만경대뜨락으로 들어서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보시며 할아버님께서는 너무도 기쁘고 반가우시여 버선발로 마당으로 달려나오시였고 할머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 하시며 울음을 터뜨리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할머님의 심중이 그토록 비통할진대 만리타향에 있는 부모님들의 유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고향집사립문으로 들어서시는 그이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우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삼촌, 동생을 다 잃으시면서도 오로지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절감하였으며 더불어 만경대혁명일가야말로 참으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라는데 대하여 마음속 더 깊이 새겨안으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린시절에 리용하신 사적물의 일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두만강을 건너

우리 아버지는 간도사람들이 투쟁력이 강하다고 여러번 말씀하시였다. 나도 5.30폭동과 8.1폭동까지 겪고나서 간도지방의 조선사람들이 뛰여난 혁명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간도나 북부조선일대는 일찍부터 의병들과 독립군들의 활동무대로 되여왔다. 로씨야에서 일어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으로 맑스-레닌주의사조도 이 지역에 먼저 전파되였다. 간도일대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은 지도자들속에서 나타난 소부르죠아적조급성으로 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계속되고있었다.

그런것만큼 나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간도일대를 중요한 전략적거점으로 삼을것을 결심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도 이 일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우리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함께 간도를 항일무장투쟁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이 일대를 만몽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요충지로 삼으려고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20세기초부터 동만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야기시킨것은 그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다리를 놓자는데 있었다.

1907년 8월에 일제는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연길현 룡정에 군대를 침입시켜 거기에 《조선통감부파출소》를 설치하였고 1909년에는 중국반동정부를 꾀여 간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길회선철도공사권까지 탈취하였다. 그후 룡정의 《조선통감부파출소》는 일본총령사관으로 승격되였다. 일제가 룡정에 총령사관을 설치한것이나 그아래에 다섯개나 되는 령사관분관까지 내온것은 간도에 와있는 조선사람들을 호강시키자고 한짓이 아니였다. 그들은 그런 령사기구외에도 각지에 경찰서들을 배치하고 조선인거류민회와 같은 주구단체들을 무수히 만들어 간도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였다. 동양척식회사 출장소와 금융계도 이곳에 줄을 뻗치고있었다. 동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일본제국주의의 조종하에 있었다.

이처럼 동만지방은 혁명과 반혁명파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여가고있었다.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백두산대수림지대와 함께 동만을 무장투쟁의 거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8.1폭동을 겪은 후 박두하고있는 일제의 만주침략의 징조를 이모저모에서 느끼고있던 나는 혁명성이 강한 동만인민들을 묶어세워 한시바삐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그래서 동만으로 나갔다.

내가 처음 동만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우리 동무들은 만류하였다. 일제의 폭압기구와 정보망들이 거미줄처럼 늘어져있는 곳에 가는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들어가는것과 같은 모험이라는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혁명할 결심을 굳게 다지고 대담하게 동만으로 나갔다.

그때까지 나의 활동은 주로 도시청년들과 학생들속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할수 있다.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로선의 요구에 맞게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자면 우리들자신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일제와의 항전에로 하루빨리 준비시키는것이 필요하였다.

국제당에서도 내가 동만으로 가는것을 지지하였다.

나는 먼저 돈화로 향하였다. 이 일대가 8.1폭동의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기때문이였다. 돈화는 이 폭동의 근원지였고 중심무대였다.

여기에는 일본군의 한개 수비대본부와 길림총령사관산하의 령사관분관이 있었으며 구동북군의 677련대본부가 있었다. 적의 폭압력량이 이처럼 조밀하게 배치되여있는 곳에서 8.1폭동과 같은 무모한 폭동이 일어난것은 이 일대에서 좌경모험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한 사정과 관련된다. 돈화는 반석과 함께 엠엘파의 본거지였으며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의 한개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박윤세, 마건과 같은 8.1폭동의 주모자들도 바로 이 고장에 활동기지를 두고있었다.

돈화에는 당 및 공청,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우리가 꾸려놓은 여러가지 혁명조직들이 있었고 진한장, 고재봉, 고일봉과 같은 믿음직한 동지들이 있었다.

나는 돈화에 가자 진한장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중국 산동옷을 입고 다니면서 폭동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내가 길림에서 공청소조들을 도처에 꾸려놓을 때 중학교에 다니던 진한장도 돈화에서 우리 조직에 망라되여 활동하였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에는 그가 오의성부대 총사령부에서 비서장으로서도 활약하고 동북항일련군에서 사단참모장, 사장, 방면군군장, 남만당위원회 서기 등도 력임하였지만 그때는 소박하고 조용한 공청원이였다.

진한장은 장울화와 같은 부자의 아들이였으나 혁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공청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진한장의 아버지는 큰 부농으로서 말도 몇백필씩 가지고있었고 총도 여러자루 갖추고있었다. 집주변에 토성까지 치고있어 그 위풍이 간단치 않았다. 그는 롱담삼아 나에게 자기네는 원래 타도대상인데 집주변이 다 제땅이므로 남의 땅은 밟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집 땅이 딱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부자였던것만은 사실이다.

진한장은 공산주의를 배워준 선배라고 하면서 나를 환대해주었다. 생활이 유족하다보니 그 집에서는 내가 공밥을 먹어도 아까와하지 않았다.

나는 진한장과 고재봉을 내세워 흩어진 조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중국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면서 동무들을 찾아다니였고 밤에는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면서 조직들을 복구하였다. 이렇게 폭동의 후과를 기본적으로 수습해놓은 다음 국제당에서 받은 위임대로 돈화에서 길동지구공청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후 고재봉을 비롯한 몇몇 공청원들이 나에게서 두만강연안의 도시와 농촌들에 나가 대중을 혁명화하며 당조직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받아가지고 활동구역으로 떠나갔다.

나도 진한장에게 돈화중학교에 들어가서 공청활동을 하라는 과업을 주고 돈화를 떠났다.

내가 동만에 가서 맨 처음으로 들린 곳은 화룡이였다.

화룡에는 길림사범학교를 다닐 때 우리의 공청조직에 망라되여 활동하던 조아범이라는 중국동무가 있었다. 채수항과 같은 조선동무도 있었다. 이런 줄을 타고 들어가면 폭동의 후과도 수습할수 있고 조직들도 확대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나는 먼저 대립자라는 곳에 가서 조아범을 만났다.

조아범은 8.1폭동의 후과가 대단히 크다고 하면서 폭동후 조선동무들이 다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아범은 감옥에 들어갔던 몇몇 동무들이 인차 석방될것 같으니 만나보라고 하였다.

며칠후 채수항이 련락을 받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원래 룡정에서 동흥중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였다. 내가 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길림에 와서 사범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영향을 받고 혁명사업을 시작하였다. 채수항은 길림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축구선수로 인기가 있었다. 그 당시 여러명의 화룡출신청년들이 길림에 와서 공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인민을 위한 길에서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겨레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한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18마리의 닭과 닭알광주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농가에 계시면서 사업하시던 주체39(1950)년 11월 어느날 밤이였다.

집을 내여드린 로인이 수령님께 닭이라도 몇마리 대접하겠다고 찾아왔다.

그이의 말씀이 계셔서 닭들을 닭장채로 뒤두고 갔던것이다.

그런데 어두운데서 그만 잘못 다쳐놓아 닭들이 푸드득거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방문을 여시고 부관에게 누가 닭을 잡는가고 물으시였다.

부관이 주인집로인이 닭을 요긴히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잡는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이 밤중에 주인이 무슨 일로 닭을 잡겠는가고, 동무들이 요구하여 잡는게 아닌가고 하시면서 주인님이 정 쓸데가 있다면 우리가 사다둔 닭이 부엌에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쓰고 그 닭은 그대로 놓아두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마음먹은 일을 그만둘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몇마리의 닭을 소리나지 않게 붙잡아서 부관에게 맡기며 그이께 대접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필요하면 나머지 닭도 더 잡아서 쓰라고 하였다.

그 며칠후였다.

볼 일이 있어 또다시 집으로 들어갔던 로인은 자기가 붙잡아주었던 씨암닭이며 틀스러운 수닭이 무리를 거느리고 모이를 쪼는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웬일인가 하여 닭마리수를 세여보니 18마리가 그대로 있었다.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닭장에서 방금 받아내신 따끈따끈한 닭알을 꺼내시며 닭을 잡아먹는것보다 알을 내우는것이 얼마나 재미있는가고 하시며 어서 식기 전에 주인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이르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그이께서 농가를 떠나시는 날이였다.

부관은 닭알이 가득 찬 광주리와 함께 18마리의 닭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닭장을 집주인에게 《인계》하였다.

인민존중의 새 전설

주체70(1981)년 3월 중순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아스까다 이찌오가 조선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스까다를 만나 회담도 하시고 그를 위해 성대한 연회도 차려주시였다.

3월 어느날 아스까다는 조선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기에 앞서 답례연회를 차리였다.

그때 아스까다는 수령님께 한개 도시를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주택구역이 형성된 문수지구를 돌아본 소감을 말씀올리면서 문수거리에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심으면 좋을것 같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가로수로 사과나무를 심어도 나쁘지 않지만 사과나무에는 벌레가 잘 생겨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며 정전직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시였다.

어느날 70이 된 로인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그 로인은 편지에서 평양을 예로부터 류경이라고 불러왔는데 왜 가로수로 버드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나무를 심는가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편지를 읽고 일을 잘못하였다는것을 느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사실 버드나무는 봄철에 솜털이 날리여 도시가 어지러워지고 또 키도 크고 아지를 많이 쳐 건물을 가리우기때문에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버드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인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평양의 여러 거리들에 버드나무를 심도록 하였다고 하시였다.

아스까다는 인민들의 의견을 그처럼 존중하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풍모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그때 로인의 편지를 받아보고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며칠동안 잠도 오지 않았다고, 평양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도록 토의한 다음 그 로인에게 회답편지를 보냈다고 하시였다.

아스까다는 수령님을 경건하게 우러렀다. 그리고는 감동에 젖어 말씀올렸다.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평범한 로인에게 회답편지를 보내준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참으로 인민을 제일로 존중하시는 주석각하께서만이 꽃피우실수 있는 인민존중의 새 전설입니다.》

* * *

전선길에 새겨진 만단사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은 저절로 지켜지는것이 아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과 민족리간책동으로 하여 충돌과 전쟁, 테로의 살륙전이 그치지 않고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만은 평화와 겨레의 안전이 보장되고있다.

그것은 선군으로 나라의 군력을 다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기 인민의 운명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자주적삶이냐, 제국주의의 노예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오죽하였으면 조국의 운명을 두고 길어서 3년후에는 제명을 다 살것이라는 랑설이 세계에 나돌았고 진보적인류는 우려와 불안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바로 그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는 선군정치에 있다!

그이께서는 이 철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다박솔초소에로의 현지시찰을 진행하시여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였다.

그이께서 이어가신 전선시찰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은 오늘도 가슴뜨거운 만단사연들을 전하고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그이께서 철령을 넘으시기를 그 몇번인지 모른다.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험준한 철령을 넘고넘으시는 그이께 언제인가 일군들은 부디 사납고 험한 철령만은 더는 넘지 마시기를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교시하시였다.

…나도 그 령이 사납고 험한 령이라는것을 잘 안다. 령을 톺아오르다가 아차 실수하면 천길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다는것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철령을 넘나드는것은 철령너머에 사랑하는 나의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며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기때문이다. …

선군의 산악 오성산에도 그이의 발자취가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험하다고, 절대로 오르실수 없다고 만류하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고지에 우리 군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최고사령관이 오늘같은 궂은 날씨에 전선의 험한 령길을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며 칼벼랑길을 톺으시였다.

세찬 폭우에 뿌리채 뽑히운 잡관목들이 나딩굴고 사품치는 흙탕물에 씻기워 앙상하게 드러난 돌뿌리들과 아찔한 낭떠러지들…

야전차가 헛바퀴질하며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위험천만한 그 순간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몸소 차체에 어깨를 들이대시였다. 그러시고는 흙탕물이 휘뿌려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차를 미시며 한치한치 령길을 오르시였다.

오성산의 칼벼랑길만이 아니다.

최전연의 1211고지, 원쑤들의 총구가 도사린 판문점초소와 풍랑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고 찾으신 초도…

그 나날 야전식사, 야전리발, 야전솜옷, 야전렬차와 같은 혁명일화들을 남기시며 휴식도 야전차에서의 쪽잠으로, 식사도 한덩이 줴기밥으로 대신하신 장군님이시였다.

동부와 서부, 중부를 비롯한 조국의 천리전선길들에 새겨진 감동깊은 만단사연이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으로 되였다.

그렇게 이어가신 그이의 전선길이 있어 조국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과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고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정녕 선군이 아니였다면 삼천리강토는 전쟁의 참화를 면치 못했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당하게 되였을것이다.

하기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백두의 훈련열풍을 일으키시여

오늘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

지난 2월 8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 축하연설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1932년 4월 25일이 있어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창건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풍부한 투쟁경험, 령활한 전법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발전행로에 자랑찬 승리와 영광만을 새기며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있어서 훈련강화는 혁명의 운명, 혁명무력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전군이 백두의 훈련열풍으로 용암처럼 끓어번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을 지도하실 때였다.

훈련장은 지심깊이에서 끓어번지던 용암이 터져오르는듯 활화산같이 노호했다. 강철포신들에서 련속 날아가는 시뻘건 불줄기들,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비행대들과 물갈기를 세차게 날리며 돌진하는 해군함정들, 바다속을 헤가르는 잠수함에서 뿜어진 증오와 복수의 명중탄들로 하여 하늘, 땅, 바다가 세차게 뒤흔들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타격시기를 바로 정하고 신속성, 정확성, 일치성을 보장하여 집중화력타격을 들이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싸움준비에서 래일이면 늦는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훈련으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이해온 일당백싸움군들이 다르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에는 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시려는 열화같은 조국애와 멸적의 의지가 어려있다.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7》이 진행되는 날 현지에 나오시여서는 훈련이자 전투이며 전쟁이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 민족의 운명을 걸고 훈련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아무리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추고 훌륭한 전법을 가지고있어도 장병들이 훈련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없다고 하시며 땅크병부대, 구분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신분도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 주체105(2016)년 3월 촬영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전쟁환경에 접근한 실용적실동훈련을 많이 조직하도록 하시고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 조국통일대전의 맹장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증강한 땅크장갑보병련대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
주체106(2017)년 1월 촬영

각종 훈련과 경기대회들을 지도해주실뿐만아니라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시찰하시고 그들속에 훈련열풍을 북돋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군에는 백두의 훈련열풍이 세차게 타번지였다.

그 나날 인민군장병들의 전투훈련에서는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가 철저히 배격되고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이 끊임없이 개선되였으며 모든 군인들이 총알처럼 땅땅 여문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되였다.

적대세력의 그 어떤 도전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백승의 방략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인민군대는 일단 유사시 불이 번쩍나게 침략세력을 제압할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국가방위력은 철옹성같이 다져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철민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
주체106(2017)년 8월 촬영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최강의 힘 과시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이 2월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이 답례하신 후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규무력이 탄생한 1948년 2월 8일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도 이어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위풍당당하고 위력막강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진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라고 강조하시고 전군의 장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조국의 기대가 크고 인민들의 사랑이 극진할수록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답게 성실한 복무와 헌신적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보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륭성번영할것이라고 하시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이어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조국보위의 노래》주악이 울려퍼지는 광장으로 70년전 력사적인 조선인민군의 첫 열병식의 감격과 환희를 불러오는 정규무력건설시기 상징종대들이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발걸음드높이 나아갔다.

그뒤로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급단위, 병종, 전문병, 군의근무병종대들과 기계화군단들이 반제혁명전쟁의 풍부한 경험과 백전백승의 자랑찬 전통, 그 어떤 전쟁환경에도 대처할수 있는 실전능력을 갖춘 우리 군대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음을 과시하며 용

기백배하여 질풍쳐나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전략군부대들이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우뚝 솟구쳐오른 우리 조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열병광장을 힘차게 누벼나갔다.

행진군악대가 《승리》라는 글발을 새기며 씩씩하게 나가는 속에 광장상공에 전투기들이 오색부채살모양의 비행운을 새기며 열병식마감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범접 못하는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성새로 더욱 굳건히 다지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와 함께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최강의 힘을 지닌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리광성
안철룡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보며 (4)

전통적인 민족회화형식을 현대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조선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고 17호실을 나선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18호실에 들어섰다.

18호실에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창작된 조선화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우리는 먼저 조선화 《장군님과 성강의 로동계급》(김동환)앞에 섰다.

작품은 쇠물이 이글거리는 주홍빛백광색을 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열정적인 영상을 화면중심에 모시고 그이를 우러러 기어이 우리 힘으로 주체철을 생산할 불같이 뜨거운 맹세를 다지는 로동계급을 형상하고있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성강로동계급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준 작품을 감상하고 조선화 《90년대의 불사조들》(김성민)앞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박물관을 참관하는 학생들

그림은 어느 한 혁명사적지에서 뜻밖의 화재가 났을 때 조국의 귀중한 혁명재보이고 자랑인 구호문헌나무를 구원하고 희생된 17명 영웅전사들의 실재한 사실을 반영하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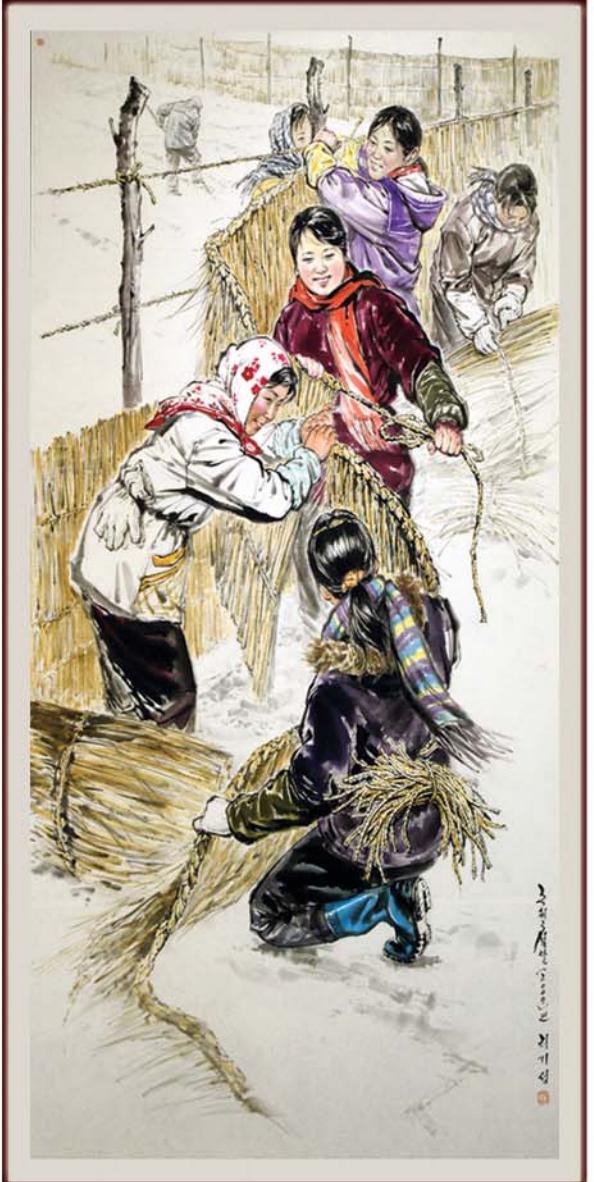
그림에는 한몸이 타 재가 된다 해도 구호나무만은 꼭 살려내야 한다는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아름다운 청춘의 고귀한 삶을 빛내인 영생의 모습들이 붉은 화폭속에 기념비적으로 형상되여있었다.

조선화 《90년대의 불사조들》

화가는 무섭게 타래치는 불길과 숨막히는 연기, 구호나무에 진흙을 바르다 못해 두팔로 그러안은 지휘관, 생의 마지막순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하늘을 우러르는 군인들의 모습 등을 조선화의 힘있는 단붓질과 피움법으로 형상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깊은 감동속에 그림을 감상하고있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의 길에서 화상으로 자기 얼굴을 잃은 세 전사를 만나보시고 그들을 본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세상에 내세워주도록 하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관자들은 혁명전사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젖어있었다.

조선화 《청년분조원들》(리기성)에서는 당(조선로동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대풍을 안아오려는 청년분조원들의 랑만에 찬 모습을 세운 구도속에 인물들을 사선으로 배치하고 조선화의 몰골기법으로 대담하게 처리하여 엄혹한 자연에도 끄떡하지 않고 농사일을 다그쳐나가는 농촌청년들의 모습을 생활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조선화 《예, 예,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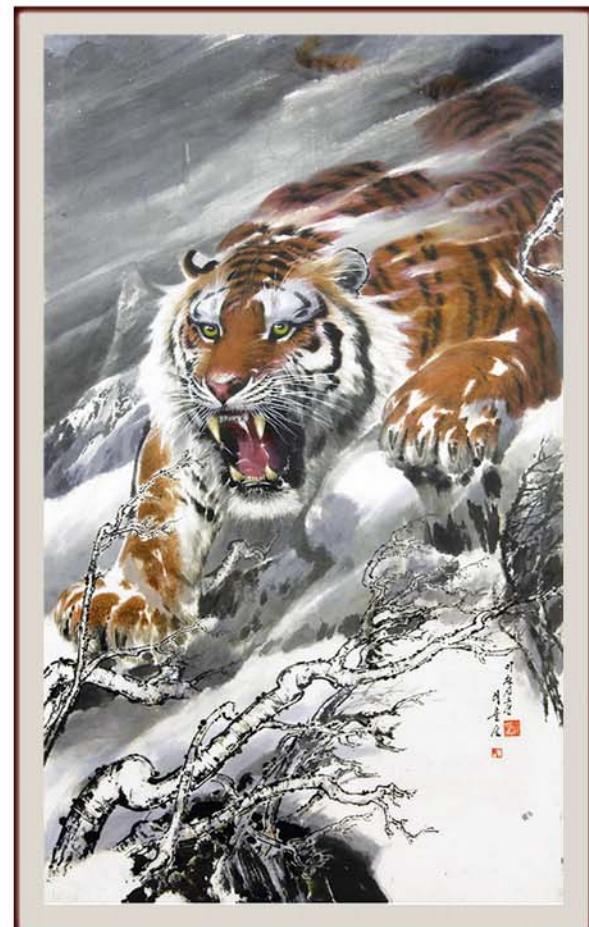
한편 조선화 《두만강의 새봄》(조영철)은 화가가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옛날 눈물젖은 두만강이 오늘은 행복의 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되였다고 하신 그 말씀에서 종자를 잡고 창작한것이다.

이 호실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한 작품들도 전시되여있었다.

그가운데서도 조선화 《예, 예, 옛》(리영봉)

조선화 《청년분조원들》

은 나라없던 그 시절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유격근거지학교에서 난생처음 우리 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형상한 작품이다.

화가는 선생님의 물음에 자신있게 손을 높이 든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르면서도 남의 책을 들여다보며 손을 든 고무총까지 찬 장난세찬 아이, 쑥스러워하면서 손을 든 아이, 부모들의 큰 옷을 접어입고 배우려고온 아이 등 각이한 나이의 아이들을 8자형구도속에 배치하고 조선화의 몰골기법으로 재치있게 형상하였다.

화가는 작품전반에 관통되고있는 아동단원들의 구체적인 생활세부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나라 무료교육제도의 력사적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였는가를 깊이있게 잘 보여주었다.

이렇듯 조선화는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이 뚜렷하게 체현되여있을뿐아니라 간결하고 섬세한 화법으로 힘있고 아름다우면서도 고상한 회화형식으로 오늘도 발전되여가고있다.

참관자들은 조선화를 위주로 하여 미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가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지향에 맞게 발전되여나가리라는것을 확신하며 조선미술박물관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조선화 《백두의 호랑이》

조선화 《금강산 양지대의 봄》

인민을 천리마에 태워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조국인민들은 그 기세로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2(1953)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복구발전기본방향 등을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전국의 수많은 공장과 농촌,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하여 3개년인민경제복구발전계획(1954년-1956년)이 2년 8개월동안에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하지만 인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펴이지 못하였다. 게다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소동과 수정주의자들의 책동,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북진》소동으로 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복잡하였다.

그러한 속에 조국인민들앞에는 5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1957년-1961년)을 수행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섰다.

그러나 자금, 자재, 설비를 비롯하여 부족한것이 너무도 많았다.

언제나 인민에 의거하여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높이 세운 인민경제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명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긴장한 강재문제를 풀기 위해 그해 12월 28일 이른아침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였다. 이날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신 그이께서는 당은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믿고있으며 동무들에게 기대를 걸고있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호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강선의 로동계급을 산악처럼 일떠세웠다.

그들은 두대치기압연을 비롯한 새로운 방법들을 대담하게 도입하였고 로보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수백℃를 헤아리는 채 식지 않은 로에 앞을 다투어 뛰여들었다. 하여 강선의 로동계급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년산 6만t공칭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들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강선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천리마운동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시려고 주체46(1957)년 새해벽두에는 황해제철소(당시)를 찾으시였다. 이어 눈보라를 헤치시며 문덕과 숙천의 농촌들을 찾으시여 농민들과 마주앉으시고 알곡소출을 높일데 대하여서도 의논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따라 온 나라 인민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들고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도처에서 낡은 기준량이 없어지고 증산과 절약의 예비가 쏟아져나왔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김책제철소(당시)의 로동자들은 년산 19만t의 능력을 가진 설비로 27만t의 선철을 뽑아내고 황해제철소(당시)의 로동계급은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대형용광로를 일떠세웠다. 농업부문에서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은 변모되고 인민생활은 날로 높아졌다.

그이께서는 천리마에 온 나라 인민을 태워주시고 힘껏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여 천리마운동을 더욱 고조시켜나가시였다.

주체47(1958)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시였으며 기양과 덕천 등을 찾으시여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우리의 손으로 꼭 만들어내자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35일만에 《천리마》호뜨락또르가, 40일만에 《승리-58》형자동차가 태여났으며 이어서 불도젤, 양수기, 굴착기, 자동차기중기, 8m타닝반, 전기기관차 등이 고고성을 울렸다.

조국은 남들이 수백년동안에 한 공업화를 단 14년동안에 수행하였으며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그 면모를 바꾸었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천리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해가기 위해 주체50(1961)년 4월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평양의 모란봉기슭 만수대에 천리마동상을 건립하였다.

본사기자 김솔미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계절에 관계없이 메기풍년을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실현된 순천메기공장은 지난해에 평안남도의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공장이다.

지배인 김성경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11월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학양어의 기치를 추켜들고 년간 천수백t의 메기를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지금 우리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과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신년사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순천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해성과의 담보는 과학양어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연구하여 국가발명권을 받은 진공법에 의한 메기새끼생산을 현실에 도입한 결과 알의 무균상태를 보장하면서도 그 크기를 일반크기보다 1.5배나 크게 함으로써 커다란 실리를 얻고있다.

또한 먹이소비단위기준을 극력 낮추고 생산량을 높일수 있는 팽화먹이생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워놓고 먹이보장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고있다.

가열장과 열뽐프장의 관리공들은 모든 기대들을 표준조작법의 요구에 맞게 다루고 운전함으로써 만가동의 동음높이 일정한 온도의 물을 정상보장하고있다.

한미순을 비롯한 알깨우기 및 새끼메기기르기호동, 실내비육호동의 양어공들도 물온도의 변화에 예민한 새끼메기의 사름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메기의 증체률을 최대로 늘이기 위해 책임성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물이 끓듯 많은 메기들이 욱실거리고있는 야외박막못의 양어공들은 메기풍년의 기쁨을 안고 하나같이 실한 물고기를 수확한데 이어 실내비육호동에서 일정하게 자란 물고기들을 못에 옮겨넣고있다.

양어작업반 반장 조철민은 《메기의 먹이단위소비기준을 더욱 낮추고 물 ㎥당 생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메기생산주기를 줄여나갈 때에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농장에서는 한해에 한번의 풍작을 거두지만 우리 공장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시장철 메기풍년을 이룩해가겠다.》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알깨우기와 새끼기르기에 힘을 넣어

야외박막못에서

보람

질좋은 케블을 더 많이

평양빛섬유통신케블공장의 종업원들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종 케블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재보장이자 생산이라는 관점밑에 자재선행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생산공정의 유기적결합을 실현해나가고있다.

특히 현대적설비들로 장비된 공장의 특성에 맞게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기대에 정통하고 설비조작을 능숙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증산의 동음 세차게 울리게 하고있다.

케블생산의 기본공정을 맡고있는 빛케블직장과 동케블직장의 생산자들은 설비관리를 알심있게 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질좋은 통신케블을 련속 뽑아내고있다.

공무직장의 로동계급도 설비가동률이자 생산실적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설비보수와 수리에 필요한 각종 설비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여 케블생산을 담보하고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과 설비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기술 및 품질관리과의 기술자들은 생산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빛케블2차피복흐름선, 빛케블완성피복흐름선, 빛케블연정기, 동케블심선연신기등에 대한 PLC조종체계를 구축하여 생산공정에 대한 자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뿐만아니라 빛케블완성피복흐름선의 주름강형성기와 감속기를 쓰지 않는 기계식자동사출기, 수입에 의존하던 고체계전기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제품의 질과 안전, 생산속도를 훨씬 높이였다.

질좋은 제품생산을 위해

기사장 오천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신을 현대화하는데서 우리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 우리는 생산공정과 설비의 주체화,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 질좋은 케블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와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겠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제품을

자랑많은 유치원

대성구역 려명유치원 어린이들은 지난해 8월에 진행된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을 비롯한 여러 경연들에서 1등을 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유치원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말 공부시간

정말 그러하였다.

려명유치원은 려명거리와 더불어 지난해 5월말에야 개원식을 진행하였던것이다.

하여 우리는 그 비결을 알고싶은 마음속충동을 안고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우리를 반겨맞아준 원장 김경란은 먼저 높은2반교양실로 이끌었다.

교양실에 들어서니 어린이들이 그림그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중 한 어린이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그 어린이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가위로 종이를 오려 그림을 얻어냈다. 놀라왔다. 일명 종이베기라는것이였다.

우리가 철갑상어를 만들어보라고 하자 그는 즉시 가위로 금시 물속을 헤가르는듯 한 철갑상어를 오려냈다.

리경교양원은 이 어린이가 바로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 그림부문에서 1등을 한 홍명성어린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명성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전부터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력이 높고 상상력이 풍부하였으며 미술에 취미를 가지고있었다고 하였다.

종이를 오려 그림을…

교양원은 명성이의 싹을 발견하고 그가 재능을 꽃피울수 있도록 지능을 더욱 계발시켜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명성이가 만든 종이베기작품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도 보아주시였다고 한다.

낮은4반교양실에 들어서니 어린이들이 김은주교양원의 지도밑에 자그마한 손들에 바이올린을 들고 제법 활긋기, 빠른 손가락짚기를 능란하게 하고있었다. 특히 최려정어린이의 빠른 손가락놀림과 민감한 음악적감수성에 우리마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린이들의 재능에 혹시 그들의 부모들이 예술인은 아닌가고 묻는 우리에게 김은주교양원은 아니라고, 로동자나 교육자들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주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자그마한 싹을 찾아내고 그들의 취미와 소질에 맞게 교육을 주기 위해 교재연구토론회, 분과별토론회를 다양하게 진행하고있었다.

재능을 꽃피워간다.

모든 교양원들이 부단히 사색하여 어린이교육교양에 필요한 새것을 내놓는데 이것은 뛰여난 재간둥이들을 배출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었다.

바로 그래서 유치원에는 서예를 잘하는 천진송, 피아노를 잘해 아동음악방송무대에 출연하였던 김류려, 박원웅, 김윤정, 바이올린을 잘하는 최려정, 박학봉, 김성영, 윤지영, 리평룡, 전자풍금을 잘하는 태현은, 김려은을 비롯하여 날마다 재간둥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것이였다.

그러한 재간둥이들로 가득찬 조국은 앞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할것인가.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더 밝아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유치원문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지능놀이

의사놀이

성실한 인간의 모습

고성철

조선과학기술총련맹 평안북도 선천군위원회 서기장 고성철은 성실한 인간으로 군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일군이다.

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성철은 벌써 20여년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선천군인민위원회 지방공업부 기술준비소 설계원으로 배치되여 일할 때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는 그가 지닌 좋은 품성에도 있지만 보다는 군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에 있다고 한다.

실지 그의 이런 노력으로 하여 지난 기간 군내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주체화실현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지금은 군위원회 서기장사업을 하고있는 고성철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직책은 변했어도 군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자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

군의 과학기술사업을 맡아보고있는 그로서 해야 할 일은 많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도 스스로 맡아안고 진행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군 하였다.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그의 그러한 모습을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군식료공장에서 찾아볼수 있었다.

사실 군식료공장의 현대화사업도 그가 새로운 콩우유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한것을 발단으로 시작되였다.

식료공장의 현대화일로 현장에 나와있던 고성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리 가치있는 연구성과라 해도 그것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것이 못되고 또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지 못한것이라면 백해무익한것입니다. 나는 이런 견지에서 군과학기술축전과 전시회, 발표회를 진행하며 출품된 연구성과들에 대한 심의평가사업도 진행하군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사업에서 누구보다 일군들이 앞장에서 내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니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에 깊이 들어간 고성철이다.

그는 농촌에 가면 그곳 일군들과 힘을 합쳐 능률적인 농기계와 비료시비기를 창안제작하느라 밤을 지새웠고 새형의 6m^3가정용수압식메탄가스탕크를 연구하여 농촌살림집들에 도입하느라 뛰고 또 뛰였다. 그리고 도자기공장에 가서는 미완성이던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도자기제품생산방법을 스스로 맡아안고 완성하였으며 농기계공장에서는 각종 련결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한데 이어 새형의 풍력발전기를 연구제작하였다.

새형의 풍력발전기를 제작하는 연구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신심이 없는데로부터 이 사업에 열성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때 그는 우리가 믿을것은 우리의 힘과 기술뿐이라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고 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그의 호소에 일시적이나마 동요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털어버리고 맡은 일에 열성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정확한 과학기술적론거를 세우고 콤퓨터모의를 거듭 반복하면서 설계도면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그 나날 수십번의 기술협의와 심의가 진행되고 시험과 실패가 거듭되였지만 그는 끝내 자기 지방에 맞으면서도 효률높은 풍력발전기를 연구제작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자기의 가사처럼 여기고 한생을 성실하게 바쳐가는 그를 군내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것은 참으로 당연한것이였다.

그는 말하였다.

《일본땅에서 고아의 설움속에 살던 나를 품에 안아주고 대학공부를 시켜 일군으로 내세워준것은 조국의 품입니다. 그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자면 아직 나는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식

콜레스테롤을 줄일수 있는 식품들

다시마-타우린이 풍부히 들어있어 혈액 및 열물에 있는 콜레스테롤량을 줄일수 있다.

강냉이-칼시움, 린, 셀렌, 레시틴, 비타민E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물질들은 모두 혈청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양파-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적은 량의 티오아미노산이 들어있어 동맥경화를 예방할수 있다.

마늘-류화물들의 혼합물이 들어있어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의 형성을 막을수 있다. 이 물질들은 고밀도지방단백질을 증가시키는데 유리하며 심장동맥을 보호한다.

사과-칼리움이 많이 들어있어 몸안에 남아돌아가는 나트리움염을 제거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과를 자주 먹으면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수 있다.

소젖-칼시움을 많이 함유하고있어 콜레스테롤합성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인체의 콜레스테롤흡수량을 줄일수 있다.

상식

조선동해의 이름은 언제 생겨났는가

우리 나라 동쪽바다의 이름을 처음 《동해》로 기록한것은 B. C. 37년이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사절요》에는 동해 및 그와 관련된 기록이 총 11개가 있는데 모두 삼국시기의 력사기록에서 나왔다.

그가운데 동해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했거나 거기에 준한것이 8개다. 그러므로 동해라는 고유명칭은 문헌적으로 보아도 2천년전부터 써온것으로 된다.

* * *

조준점과 명중탄

압록강국방체육단에서 세계적인 사격강자를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훈련과장 김창남을 비롯한 체육단의 일군들은 권총, 이동보총, 보총, 날치기사격종목들의 감독, 선수들이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하기 위한데 모를 박고 훈련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훈련의 앞장에는 권총종목의 감독들과 선수들이 서있다.

책임감독 김철호를 비롯한 감독들은 과학적인 훈련방법으로 선수들의 기록을 보다 갱신시켜나가기 위해 매 선수들의 육체, 기술, 심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단계별훈련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선수들이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식 명중사격의 5대요소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훈련방법을 도입하고 선수들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있다.

김성국, 오현주, 리향순을 비롯한 남녀선수들은 모든 훈련을 과학적인 사격조법에 맞추어 진행해나가는 동시에 효과적인 훈련수단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조준 및 무기유지능력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새 기록창조의 열쇠는 경기의 속도화에 있다는것을 깊이 깨달은 그들은 모든 동작들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수행하면서도 단번조준, 빠른 격발에 의한 규칙적인 발사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해나가고있다.

성과는 이동보총종목의 감독들과 선수들속에서도 이룩되고있다.

책임감독 정용원, 감독 김춘삼을 비롯한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백발백중 사격술의 근본비결이 사수의 사상적준비정도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심어주는것과 함께 종목안의 모든 선수들이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이기 위한 훈련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육체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훈련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보조훈련수단을 리용하여 반응속도제고에 큰 힘을 넣고있다.

육체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재별훈련

훈련결과를 분석하는 보총사격선수들과 감독들
권광일, 백옥심을 비롯한 이동보총사격선수들은 자체암시법과 같은 심리훈련방법을 적극 적용하여 이동하는 목표에 대한 정확한 사격자세로부터 발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동작들을 안정된 심리상태를 가지고 수행해나가고있다.

이밖에도 보총, 날치기사격종목들에서도 훈련성과가 확대되여가고있다.

압록강국방체육단의 모든 사격종목 감독, 선수들은 훈련을 통하여 10점 만점계선에 도달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적인 사격경기추세에 맞게 그 어떤 불리한 경기정황속에서도 자기의 사격기술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조준점마다에 명중탄들만 꿰뚫을 승리의 그날을 앞당겨가고있다.

조준 및 무기유지능력을 높이기 위해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 식

로화를 막는 운동

로화는 발과 허리동작이 굼뜬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리거나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장애물들을 피하지 못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한쪽발로 서는 동작은 로화를 막고 육체의 젊음을 유지해준다.

한쪽발로 서는 동작은 첫째로 심장에서 제일 먼곳에 있는 발의 피를 심장에 다시 돌려보내는 힘을 키우게 한다.

둘째로 온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키워준다.

셋째로 발과 허리의 힘을 키워준다.

넷째로 피흐름량을 높이는것과 함께 식물신경을 단련시키는 작용도 한다.

한쪽발로 서는 동작으로 그날의 몸상태를 대체로 가늠할수 있다.

손을 허리에 대고 한쪽발로 서서 천천히 목을 돌려본다. 두발이 다 비틀거리지 않으면 30대의 체력이고 한쪽발만 비틀거리면 40대의 체력이다. 잘되지 않는 날은 몸상태가 좋은 날이라고 할수 없다.

* * *

태성리의 새 모습

평양-남포사이의 청년영웅도로를 따라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한폭의 그림마냥 아름답게 펼쳐진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소재지마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현대적인 공공건물들과 농촌문화주택들, 학교와 유치원, 문화회관…

마을의 전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한 로인이 무랍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였다.

《여기가 바로 내가 사는 마을이라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찾는데 손님들도 구경오셨소?》

우리의 소개에 로인은 반가와하며 우리를 마을로 이끌었다.

로인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전변된 자기 고장이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였다고, 지금 태성마을사람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리에서 많은 살림집들을 새로 건설하였는데 자기 가정이 한세대, 세간난 자식도 한세대 받았다고 자랑을 늘어놓는것이였다.

우리는 자기 이름이 김광수이며 자기 집도 꼭 들려달라는 로인과 헤여져 체육경기가 한창인 학교운동장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휴식일이여서 운동장에서는 작업반별 축구경기와 배구경기가 한창이였는데 어느 경기 할것없이 볼만 하였다. 그중에서도 농산1작업반과 농산2작업반사이의 축구경기가 시간이 갈수록 치렬하였다.

우리는 농산2작업반팀에 속하여 경기를 하고 나오는 리의 일군인 리권희를 만나 그와 함께 마을을 돌아보았다.

먼저 들린 곳은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을 갖춘 태성원이였다. 1층에서는 방금 경기를 끝낸 농장원들이 목욕, 한증을 하며 피로를 풀고있었고 2층에서는 오후에 경기를 하게 될 농장원들이 여러가지 운동기재를 리용하며 육체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청량음료점도 농장원들로 흥성이였다.

농장을 선경으로 꾸려놓으니 뭐니뭐니해도 청년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일군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동화속의 그림같은 유치원과 탁아소, 리인민병원을 지나 노래소리 넘치는 문화회관으로 향하였다.

문화회관 역시 도시의 예술극장 못지 않게 꾸려져있었으며 농장원들의 예술적기량 또한 높은 수준이였다. 특히 그들이 추는 농악무는 전문가들도 무색케 할 정도였다.

새로운 벼재배기술도 배워간다.

우리는 농장원들의 흥겨운 모습을 뒤에 두고 살림집들을 돌아보았다.

자기 집에 꼭 찾아오라던 김광수로인의 당부를 머리에 떠올린 우리는 그의 집부터 들려보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로인은 살림방 두칸에 전실, 부엌, 창고 등이 살림살이에 편리하게 되여있다고 자랑을 펴놓는것이였다.

새 집에서 사는 기쁨에 넘친 농장원들의 모습은 김찬화로인과 그의 딸 김은옥이 사는 집을 비롯하여 마을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다.

김은옥은 신혼부부인 자기들한테까지 새 집이 차례질줄은 생각지 못하였는데 농장의 일군들이 자기들이 받을 집을 양보하여 이렇게 받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인민중시, 인민존중이 꽃펴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뜨겁게 느끼게 되였다고, 앞으로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고마움에 꼭 보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인기를 끄는 농악무

태성원에서

그러한 마음은 박윤철가정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그들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정성껏 마련한 지원품들을 여러 건설장들에 보내고있었는데 얼마전에는 딸이 금성뜨락또르공장 로동계급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았다.

박윤철은 우리에게 나라의 은덕으로 복을 많이 받아안은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고 애국사업에 앞장서는것은 응당한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대로 복받은 태성마을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고향을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며 농사도 잘 짓고 애국사업도 잘해가리라는 기대를 안고 이 고장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박윤철의 가정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최세진삼촌 앞

삼촌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으렵니다

삼촌,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도 애국사업에 헌신하고계실 삼촌을 그려보며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삼촌어머니를 비롯하여 온 집안이 다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얼마전에 잡지 《금수강산》기자선생들이 저의 집을 찾아왔댔습니다. 그래 저는 지난해 조국을 방문하였던 삼촌이 평양에서 여든돐생일을 쇠던 일들을 그때 찍었던 기념사진이랑 보여주며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기자선생들을 만나니 삼촌을 만났을 때처럼 얼마나 기쁘던지 하루종일 삼촌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느라니 자연히 지난해 삼촌이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우리들에게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눈물속에 하시던 당부가 되새겨졌습니다.

솔직히 삼촌앞에서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저입니다. 그것은 삼촌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못하지만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있기때문입니다. 많은 훈장들과 표창장, 지원증서들에 조국을 위한 삼촌의 그 마음이 모두 담겨져있습니다.

정말이지 삼촌의 모습은 저와 우리 가정의 거울입니다. 그래 비록 년로보장을 받은 나이이지만 저는 삼촌의 당부대로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모든 인민반에서 집안팎을 알뜰히 꾸리고 마을앞에 꽃밭이며 아이들의 학습터와 놀이터를 새롭게 꾸리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우리 가정도 모범을 보이였습니다.

삼촌, 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이동생인 학순이와 자식들에게 늘 강조하군 합니다.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저 삼촌만큼 일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동생도 그렇고 자식들도 직장에서 맡은 일들을 잘하고있습니다.

군의 어느 한 식당 책임자로 일하는 학순이는 식당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손님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자기앞에 맡겨진 일들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여 직장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요즘 군식료공장의 생산부원으로 일하고있는 둘째사위가 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발명을 하여 그곳 사람들의 호평이 대단합니다. 얼마전에도 사위직장에서 사람들이 왔댔는데 사위가 일욕심이 많고 기술이 높아 공장에서 보배로 사랑을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들을 때면 자식들에 대한 긍지가 생기고 부모로서 역할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군 합니다.

저희들은 조국에 올 때마다 늘 당부하던 삼촌의 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일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조국에서, 삼촌은 해외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껏 노력하자는것을 부탁하고싶습니다.

년로한 삼촌의 건강을 부디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북도 선천군 월천리
56인민반 최창도올림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미더운 길잡이가 되여

오까야마현에는 새 세대 동포녀성들로 무어진 무용소조 《길잡이》가 있다.

그 명칭에는 아름다운 조선무용을 통해 우리 민족문화의 찬란한 빛을 일본땅에 뿌려나가고 동포들을 애국위업의 한길로 이끌겠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30~40대의 가정부인들과 20대의 조청원들, 총련 오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망라된 《길잡이》는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동포들의 애국열의를 북돋아주는데 크게 이바지해왔다.

그들의 작품마다에는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민족의 향기를 고이 간직한 조선의 꽃으로 영원히 피여있으려는 동포녀성들의 순결한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다. 우리 장단 넘치는 곳에 웃음가득, 희망가득 넘쳐난다는것이 무용소조원들의 확신이다.

《길잡이》는 2년에 한번씩 우리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공연을 진행하군 하는데 일명 《학교를 위한 공연》으로 불리운다. 공연수익금이 전부 조선학교의 보수와 개건, 통학뻐스구입 등에 돌려지기때문이다.

얼마전에도 《길잡이》는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리였다. 그 어느것이나 다 높은 예술적기량과 풍부한 형상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관람자들은 우리 장단, 우리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출연자들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고있다.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관람하려고온 동포들도 작고 외진 오까야마지역에 이토록 훌륭한 예술소조가 있는줄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애국애족의 열정이 흐르고 고유한 우리의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길잡이》의 공연은 동포들에게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애국위업의 밝은 앞날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미더운 새 세대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교또부본부에서 동포제일주의 구호높이 조청봉사대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2년전 11월부터 본부에서는 지역안의 동포가정들에서 겪고있는 애로들을 면밀히 료해하고 하나하나 풀어주고있다.

로인들만 살고있어 일손이 부족한 가정들에서의 대청소와 이사하는 세대들의 편의보장 등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도와나서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지역내 70살이상 동포고령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생활의 구석구석을 돌보아주고있다. 이들의 진정에 동포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이구동성으로 확실히 우리 조청원들이 눈에 뜨이게 달라졌다고 칭찬한다.

지난해 조국방문을 통해 인생의 귀중한 체험을 하고온 청년들이 조청사업에 더욱 앞장서고있다.

최근년간 본부에서는 조국방문사업을 조청일군들과 조청원들에 대한 중요한 교양사업으로 삼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하여 올해에만도 많은 청년들이 조국을 방문하였는데 반향이 매우 컸다.

5년만에 조국을 방문하였다는 한 청년은 조국과 조직을 생명처럼 여기고 빛내여갈 굳은 결심을 다지게 되였다고 말하였고 체계적인 민족교육을 받지 못한탓에 애국운동에 늦게 들어선 다른 한 청년은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해 일감을 두몫, 세몫 말아 해제낄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휘황한 앞날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간직한 이런 미더운 청년들의 노력에 의해 총련의 애국위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속담 (주의)

- 긁어 부스럼

긁지 않았더라면 부스럼이 나지 않았을것을 긁은탓으로 부스럼이 났다는 뜻으로 《공연히 건드려서 만든 걱정》을 비겨 이르는 말.

- 십리가 모래바닥이라도 눈 찌를 가시나무가 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하여도 거기에는 일정한 장애물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 바늘도적이 소도적된다

처음에는 자그마한것에 손을 대다가 나중에는 아주 나쁜 길에 굴러떨어진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적게 마시면 약주요 많이 마시면 망주다

술이 도수를 넘으면 십상 실수하기 일쑤라는데서 술을 많이 마시는것을 경계하여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 * *

불타는 그리움

해마다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군 한다.

올해에도 다를바 없었다.

지난 2월 조국인민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6돐경축 중앙보고대회와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광명성절경축행사들을 중앙과 지방에서 성대히 진행하였다.

평양에서 진행한 행사들에서 조국인민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그이의 불멸의 한생이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광명성절경축행사는 조국에서뿐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회와 강연회, 회고모임, 음악회 등으로 진행되였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절세의 위인을 그리는 자기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각종 행사들을 품위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고 그리는 마음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된 행사장들에서 뜨겁게 펼쳐졌다.

심양시에서 진행된 경축행사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총련합회일군들, 산하조직대표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성원들,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성원들, 심양시에서 살고있는 조선공민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총령사관일군들, 중국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지사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각계층 동포들과 료녕성, 심양시의 인사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최은복의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때로부터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는 마지막순간까지 애오라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력사와 인민앞에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총련합회에서의 조직사업

흠모의 마음안고

그러면서 우리 조국을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민족과 시대앞에 쌓으신 업적중의 업적이라고 격찬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뿐만아니라 재중동포들은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경축공연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본 최청산동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장군님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경축공연에 출연하였던 김송미동포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온 세상에 전해가고싶어 무대에 나섰다고 하면서 우리 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격동된 심정으로 이야기하였다.

광명성절경축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며 그이의 념원은 현실로 꼭 펼쳐지게 된다는 확신을 더해주었다.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준비사업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감상회

광명성절경축 예술
공연의 일부

만경대고향집에서

나는 고국에 꼭 와보고싶었었는데 비로소 생의 말년에야 찾아오게 되였다.

나는 이번에 고국의 여러곳을 많이 돌아보았는데 그가운데서도 만경대고향집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만경대고향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곳이다.

고향집에는 지난날 암담하던 세월의 모진 고난속에서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쳐오신 위대한 주석님의 일가분들의 생활을 엿볼수 있는 사적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여있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이 집에서 일가분들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며 성장하시였고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을 큰뜻을 품고 고향집을 나서시였다. 그때로부터 20성상 주석님께서는 풍찬로숙하시며 일제와 싸워 마침내 고국의 해방을 안아오시였다.

나라찾는 싸움길에 나선 만경대의 일가분들가운데서 고향집에 들어서신분은 주석님뿐이라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나와 우리 동포들은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간직하시였던 애국애족의 뜻을 가슴에 안고 여생을 고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다 바쳐가겠다.

재끼르기즈스딴고려인
통일련합회 황 류드밀라

신심이 넘쳐난다

우리 동포들은 중국에서도 늘 조국소식을 보고 듣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고있는 조국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나의 가슴속에는 승리에 대한 신심이 더욱 넘쳐난다.

얼마전 나는 조국의 기록영화 한편을 보았다. 그 영화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억척으로 담보해주고 미제를 비롯한 추종세력들도 입을 딱 벌리게 하는 군사적위력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었다.

그 영화를 통하여 나와 우리 지부안의 동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조국의 군사적위력이 앞으로 더 강화될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가지게 되였다.

하지만 지금 세계의 일부 통신, 방송들에서는 조국의 군사적위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있다. 사실 그것은 조국의 힘을 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자들의 망발이며 또 그러한 거짓선전에 속아넘어갈 우리 재중동포들이 아니다.

그 무엇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돌려세우지 못할것이며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나는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언제나 마음은 조국과 잇고살며 통일애국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녕안시지부 지부장 박상진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5)

- 현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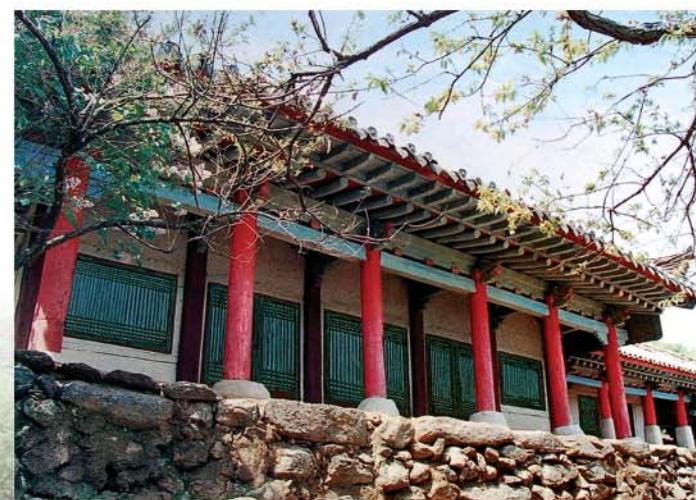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 떠난 우리는 현충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현충사는 평안북도 피현군의 백마산성 내성안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사당입니다.

사당은 외적과의 투쟁에서 공로를 세운 이름있는 명장들인 고려시기의 애국명장 강감찬장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명장 림경업장군을 비롯하여 15명을 기념하여 세운 건물입니다.

현충사는 언제 세웠는지는 알수 없으나 1708년에 고쳐짓고 성우사라고 부르다가 1789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고쳐지은 후 건물이 협소하여 서쪽에 집을 더 짓고 본전으로 삼았으며 본래의것은 영당이라 하여 림경업장군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현충사에는 본전과 영당, 2개의 비각을 비롯하여 여러채의 건물들이 보존되여있습니다.

중심건물인 본전은 정면 5간(11.85m), 측면 3간(7.55m)에 앞만 겹처마로 된 배집이며 흘림기둥에 2익공식두공을 썼습니다. 영당은 정면 3간(7.55m), 측면 2간(4.5m)의 겹처마배집이며 흘림기둥에 2익공식두공을 썼습니다. 비각중의 하나는 림경업비각인데 1636년에 세운 비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22인비각인데 1816년에 세운 비가 들어있습니다.

내성밖에는 현충사 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림경업장군이 쓰던 갑옷과 투구, 창 등 귀중한 유물들이 보존되여 내려왔는데 일제침략자들이 모조리 략탈하였습니다.

현충사는 우리 선조들의 애국주의정신을 알게 하며 당시의 건축술을 연구하는데 가치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입니다.

오늘 현충사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솔미

현충사의 본전

림경업비각

조국의 천연기념물 (15)

황해남도는 우리 조국의 식물분포구에서 온대북부식물분포구와 온대남부식물분포구의 경계지역에 놓여있는것으로 하여 식물상의 종구성이 매우 다양할뿐아니라 천연기념물도 많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도의 천연기념물들인 홍골황목련과 신원쌍둥이느티나무, 해주락우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골황목련은 황해남도 은률군의 률리에 있습니다.

홍골황목련은 향기가 독특하고 풍치상 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나무는 주체11(1922)년경에 심은것으로서 높이는 15m이고 뿌리목둘레가 2.2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1.9m, 나무갓직경은 14m정도입니다. 나무는 2m 높이까지 미끈하게 자라고 그우에 여러개의 가지를 쳤으므로 둥근갓모양을 이루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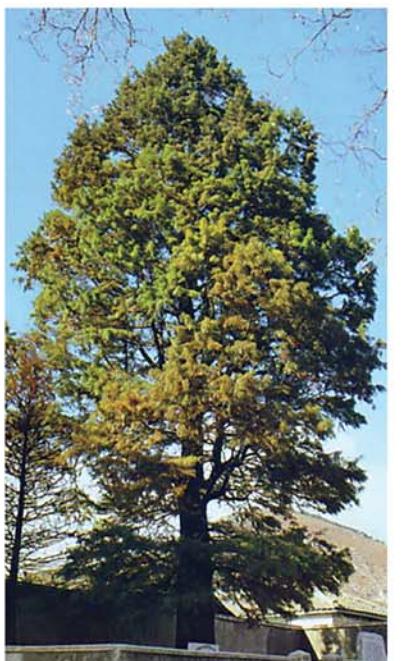
나무는 꽃피는 시기에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간다고 합니다.

신원쌍둥이느티나무는 황해남도 신원군 화석리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신원일대에서 제일 오래 자란 느티나무로서 크며 두그루가 쌍둥이마냥 가지런히 서서 풍치를 돋구는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1700년경에 심은것입니다. 오른쪽나무의 높이는 23m, 밑둥둘레는 5.1m, 가슴높이둘레는 4.7m입니다. 그리고 왼쪽나무의 높이는 21m, 밑둥둘레는 4.8m, 가슴높이둘레는 3.5m입니다.

이 두 나무들의 줄기는 약 3m 높이에서부터 여러개의 큰 가지들을 쳤으며 그 가지들과 줄기에서 많은 잔가지들이 뻗어 나무갓을 이루고있습니다. 큰 나무갓의 직경은 약 18m, 작은 나무갓의 직경은 15m정도입니다.

4월경부터는 잎이 생겨나고 5월말부터는 꽃이 피며 6월말경에 열매가 달리고 11월말에 잎이 떨어집니다.

해주락우송은 황해남도 해주시 옥계동에 있습니다. 해주락우송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의 하나이며 원림에 좋은 수종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21.3m이고 뿌리목둘레가 3.8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2.67m, 나무갓직경은 7m입니다. 나무갓은 어린 시기에 원추모양이다가 점차 자라면서 닭알모양으로 되며 원대는 곧고 3m 높이까지 미끈하게 자랍니다.

주체20(1931)년에 심은 락우송은 잎지는 바늘잎키나무로서 수삼나무와 비슷하며 가을철에 잎이 마치 새깃이 떨어지는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락우송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홍골황목련

신원쌍둥이느티나무

해주락우송

야 화

범을 끌어안고 60여리를 간 신부

충청도의 어느 한 고을에 사는 선비가 60여리 떨어진 이웃고을에 아들을 장가보냈다.

신부집에서 혼례식을 마치고 신방에 들어간 신랑신부가 마주앉아있는데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따웅!》 하며 벽력같은 소리가 나더니 큰 범 한마리가 뒤문을 부시고 방안으로 뛰여들었다. 범은 무작정 신랑의 뒤덜미를 물고 달아빼려고 하였다.

신부는 창황중에 범의 뒤다리를 꽉 끌어안았다.

범은 그냥 뒤산으로 달려오르는데 마치 바람타고 나는것 같았다.

신부는 범의 뒤다리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은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끌려갔다. 그러다나니 바위에 부딪치고 가시에 찔리우고 나무그루터기에 긁히워 치마와 저고리가 찢어지고 머리칼은 흩어졌으며 온몸에는 피가 랑자하게 흘렀다.

이렇게 60여리를 끌려갔다.

마침내 범도 기운이 진하여 풀이 무성한 어느 한 언덕우에 신랑을 놓고 달아나려고 하였다.

범이 신랑을 놓은것을 본 신부는 그제야 범의 다리를 놓아주었다.

정신을 수습한 신부는 곧 신랑의 몸을 주물렀다. 신랑의 가슴부위에서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다.

신부가 주위를 살펴보니 마침 언덕아래에 집이 있는지 희미한 불빛이 새여나오고있었다. 신부는 어둠속을 헤치며 허둥지둥 달려내려가 뒤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서는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모여앉아 술을 마시고있다가 아닌 밤중에 갑자기 온몸에 피가 랑자한 녀인이 귀신같은 꼴을 해가지고 방안에 들어서자 기겁하여 방바닥에 엎드려 일어날념을 못하였다.

신부는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뒤산에 목숨이 경각에 달한 사람이 있으니 급히 구원하여주십시오.》

그제야 여러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제히 홰불을 켜들고 뒤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가보니 젊은 사내가 언덕우에 쓰러져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누워있는 사람은 집주인의 아들이였다.

그들은 신랑을 들어다 방안에 눕히고 약물을 입에 떠넣었다.

잠시후에 신랑은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정신을 차렸다.

그 집 사람들은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신랑이 정신을 차려서야 비로소 진정이 되였다.

범은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물고 신랑집 뒤산까지 왔던것이다.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범의 뒤다리를 안고 60여리를 끌려온 녀자가 바로 자기 며느리라는것을 알고 주인은 급히 이 일을 신부집에 알렸다. 두 집 부모들이 놀라며 기뻐한것은 물론이고 마을사람들은 이 사실을 감영에 보고올려 렬녀문을 세우게 하였다고 한다.

*　　*　　*

효능이 높은 침치료법

동포여러분, 우리 민족이 5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오며 찬란히 빛내여온 민족문화유산에는 식생활, 옷차림, 민속놀이 등과 함께 고려의학도 그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럼 이번호에 고려의학에서 비약물성치료방법의 하나로 손꼽히고있는 침치료법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그에 대한 리해를 깊이하고싶어 우리는 얼마전 고려의학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30여년이나 침치료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있다는 침구연구소 실장 박사 윤성철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윤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침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구인 침은 혈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리용되는데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각이한 재질과 형태, 규격으로 침을 만들어썼다고 합니다. 석기시대에 돌로 만들어 종처를 째는데 리용한 돌침(폄석)은 5 000년전의 유물로서 라선시 선봉지구 굴포동에서 발견되였습니다.

침은 제철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쓰이였습니다. 고구려, 신라시기에 벌써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침구술이 보급되였으며 야금술이 급격히 발전한 고려시기에는 이웃나라들에까지 침을 수출하였습니다.

윤선생님은 침치료는 비약물성치료로 120여개의 질병을 치료할뿐만아니라 인체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원상회복시켜주는 우점을 가지고있으며 진통, 진정, 소염, 면역기능회복, 혈액순환개선, 림파순환개선 등에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는것, 하루치료시간은 20~30분정도이고 한 치료주기는 길어서 10일이라는것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한 중년남성이 한손으로 목을 쥐고 인상을 찌프린채 치료실로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윤선생님은 저에게 잠간 량해를 구하고 그 환자와 상담하였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며칠전부터 갑자기 경추가 아파 진통제를 먹었지만 도무지 낫지 않고 지금은 목이 뻣뻣하여 옆으로 조금 돌리자고 해도 몹시 힘들뿐아니라 팔까지 저리니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50살이 지나면 경추증이 오군 한다, 경추증의 80%이상이 신경근형 경추증이다, 환자도 이 병에 걸렸으니 침을 며칠만 맞으면 된다, 아마 첫날부터 알도리가 있을것이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잠시후 선생님은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환자를 엎디도록 한 후 해당한 침혈부위들과 침을 깐깐히 소독하였습니다. 해당 혈들에 침을 꽂은 후 몇분지나서 그는 매개 침들을 일정한 방법으로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후 선생님과 저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는 침을 놓는 순서는 대체로 우에서부터 아래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양경에서 음경으로 하며 침을 놓는 각도도 침혈의 위치나 병의 성격에 따라 달리하는데 팔다리, 허리, 배 등 살이 많은 곳에는 곧추 찌르고 머리, 얼굴 등 피하조직이 얇은 곳에는 옆으로 찌르며 관절부위나 중요장기들이 있는 가슴, 웃배에는 빗찌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는 깊이는 병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리하는데 병초기에는 얕게, 오래 되였을 때에는 깊게 놓으며 마비성질병때는 약간 깊게 놓는다는것, 침을 놓는 수법에는 단자법, 념전법, 작탁법, 류침법, 진전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는것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침치료가 시작된 때로부터 시간이 30분정도 흐르자 윤선생님은 환자에게 다가가 매 침대들을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침대에 앉은 환자는 좌우로 목을 돌려보더니 얼굴에 웃음을 띠우는것이였습니다.

《침치료를 받아보니 어떻습니까?》

윤선생님의 물음에 환자는 침치료법이 좋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체험하기는 처음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보다싶이 침치료법은 우월한 비약물성치료방법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병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럼 조국에 오시는 기회에 침치료를 받아보고싶은분은 고려의학연구원을 한번 찾아가보십시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욱

시령우의 회초리

17세기 이름있는 작가 김만중이 6살 났을 때의 일이다.

낮에 서당에 갔다와서 책보를 방안에 던지고 동무들과 함께 놀던 만중은 해가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나 배고파요.》

그는 여느때처럼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응석을 부리며 바느질을 하는 어머니품에 안기려 하였다. 예전같으면 젖먹이어린 아이를 품에 안듯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따끈한 밥그릇을 내놓을 어머니였지만 오늘은 바느질감을 쥔채 엄한 얼굴로 만중을 쏘아보는것이였다.

《너 어찌 어미말을 듣지 않느냐?》

《…》

《내가 서당에 갔다와서는 어찌라 했느냐?》

김만중이 서당에 처음으로 가던 날 어머니는 그를 앉혀놓고 서당에 갔다와서는 꼭 배운것을 다 익힌 다음에 놀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대로 여직 그렇게 했던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머리도 멩하고 훈장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있어 다리가 아파났기에 동무들과 좀 놀다가 공부하리라 마음먹었던것이 그만 이렇게 늦은것이였다.

《어머니, 다른 아이들도 놀았어요. 나만 논게 아니예요.》

《뭐라구? 그래 어머니말대로 하지 않아도 다른 애들처럼 놀아야겠단 말이냐?》

《…》

《저 웃목에 올라가 서거라. 어서…》

어머니는 여전히 엄한 빛으로 다그었다.

김만중은 할수없이 웃목에 올라갔다.

어머니는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려라.》 하고는 시령우에 얹어놓은 회초리를 내리워들었다. 아들의 종아리를 치려는것이였다.

김만중은 바지가랭이를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잡은 그 회초리로 말하면 형을 때리던 회초리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만중의 어머니가 아들을 세게 다룬다고 수군거렸다.

만중의 아버지는 그가 아직 세상에 태여나기 전인 1637년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24살이던 아버지는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있었는데 외적이 침입해오자 가족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 그러다가 강화도가 적들에게 강점되자 놈들에게 잡혀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불붙는 화약더미에 뛰여들어가 자결하였던것이다. …

《어서 걷어올리지 못하겠니?》

만중은 어머니에게서 버림을 받은것 같아 눈물이 고여올랐다.

《어서 걷어올려라.》

어머니는 여전히 엄한 어조로 독촉하였다.

그가 하는수없이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자 어머니는 종아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끝내 아픔보다 설음을 참지 못하여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연방 회초리로 아들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쳤다.

그는 난생처음으로 이렇게 매를 맞았다.

그러나 자기 잘못에 대한 생각보다 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이 솟아 말했다.

《아버지도 없는데 왜 때려요?》

《뭐라구?》

어머니는 그 말에 아픈데를 찔리운듯 회초리를 쥔 손을 문득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없다구?…》

어머니의 음성은 떨리였고 두눈에는 눈물이 고이였다.

그러나 엄한 기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녀석, 똑바로 듣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구 아버지얼까지 사라진줄 아느냐? 이 회초리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

《이 회초리는 너희들이 아버지없는 애들이라 버릇없이 자랄가봐, 아버지처럼 대바른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할가봐 지켜보고있는 네 아버지의 얼이다. 그래도 아버지가 없다구, 이 녀석.》

어머니는 더욱 성이 나서 김만중의 종아리를 쳤다.

《아버지?!》

만중은 어머니말에 감동되여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다시 때리려드는 어머니품에 와락 달려들며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니말씀을 어기지 않겠어요. 어머니!》

품에 안긴 아들을 쓸어만지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뜨거운것이 김만중의 머리에 떨어졌다.

만중은 이때부터 어머니의 말을 어기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   *   *

통일을 부르는 4.19의 정신

남조선에서 4.19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덧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리승만독재《정권》의 반역통치를 끝장내기 위하여 죽음도 두려움없이 총칼폭력에 용감히 맞서싸운 의로운 봉기자들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겨레의 가슴속에 남아 통일을 부르고 있다.

4.19인민봉기는 미국의 악랄한 식민지정책과 괴뢰통치배들의 파쑈악정에 대한 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대중적인 반미반파쑈항쟁이였다.

당시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강화할 흉계밑에 리승만역도를 부추겨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미국을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여오던 리승만역도는 1960년 3월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야망을 드러냈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짓밟힌 민주주의를 되찾고 독재《정권》을 파멸시키기 위해 총궐기하였다.

4월 19일 서울의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협잡선거 물리치자.》, 《이번 선거는 무효다.》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괴뢰통치기관들과 미제의 식민지략탈기관들을 습격, 파괴하고 불태워버리면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거의 불길은 삽시에 남조선 전지역으로 타번져갔다.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는 대중적인 투쟁에 당황망조한 리승만파쑈도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투쟁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항쟁용사들은 《리승만 물러가라!》, 《통일만이 살길이다!》, 《미국은 간섭말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결사항전을 벌려 마침내 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야 말았다.

리승만독재《정권》을 붕괴시킨 4.19인민봉기는 반미반파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커다란 승리였으며 미제의 식민지지배체제를 뒤흔들어놓은 력사적장거였다.

매국역적 리승만의 《동상》을 끌고 다니며 기세를 올리는 봉기자들

괴뢰《중앙청》으로 육박하는 청년학생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봉기를 통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일떠선 영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고 인민대중이 단결하여 투쟁에 나선다면 침략자, 압제자들을 짓부셔버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세월은 멀리도 흘러갔지만 4.19인민봉기자들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왔지만 4.19의 정신을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었다.

거세찬 촛불의 대하로 극악한 동족대결광이며 민족반역자인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촛불시위투쟁의 연장선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세력은 여러 집회와 시위투쟁에서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악폐를 청산하고 반통일악법, 파쑈악법을 철폐하는것은 통일된 미래를 열어가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고, 통일을 반대하고 전쟁위기를 격화시켜 저들의 리익을 추구하는 반통일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4.19인민봉기자들의 영용한 정신을 이어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자주,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련해

유모아

성적이 낮은 리유

친척이 나들이를 왔다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고 물었다.

《다른 과목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력사성적이 좀 락후해요.》라고 아이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력사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친척이 다시 말하였다.

《그런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일전에 우리 애의 력사시험지를 한번 보았는데 문제들이 모두 그 애가 태여나기 전에 있은 일이더군요. 그러니 그 애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하는 말이였다.

* * *

로골화되는 해외팽창책동

일본이 해외팽창책동을 보다 로골화하고있다.

그것은 지난해에 일본이 지부티와 군사기지리용문제와 관련한 협정을 또다시 체결한것을 놓고도 그렇게 볼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덴만에서 《반해적투쟁》에 참가한다는 미명하에 일본《자위대》가 지부티에서 새로운 부지를 추가로 임대하여 리용한다는것이다.

하다면 이미 이곳에 제2차 세계대전후 군사기지를 건설한 일본이 오늘날 부산스럽게 군사기지확장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는것이다.

일본이 이 군사기지확장에 대해 그 무슨《평화》를 위한것으로 표명하고있지만 그것은 허울에 불과한것이다.

명백히 말한다면 일본이 《반해적투쟁》간판을 내든것부터가 해외파병과 군사기지설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며 다른 나라에 군사기지를 뻐젓이 설치하고 확장하는것자체도 해외침략의 발판을 마련해보기 위한 위험한 시도이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은 전범국, 전패국이다. 패망후 무장해제당한 일본은 법적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을 등에 업고 되살아난 일본은 지난 기간 《자위대》의 군사적령역을 아시아와 세계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침략적군사활동을 전개할수 있는 법적발판들을 마련해놓았다. 그리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오늘날 일본지배층은 해외침략의 합법화를 위한 《자위대》의 존재를 새롭게 명기한 헌법개악안까지 강행추진하려 하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과거때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메주 밟듯 할수 있는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둔갑하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 저들이 패한것이 힘이 약했던탓이라고 제창하며 군사적힘을 키워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군비증강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하여 일본 《자위대》는 이미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대규모적인 침략무력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렇게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이기에 해외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뛰여들려 하고있는것이며 그를 위한 군사기지확장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지금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책동을 놓고 국제사회가 강한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최근 로씨야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신형반함선순항미싸일개발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일본의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을 폭로한 글이 실렸다.

그에 의하면 현재 일본은 천문학적액수의 막대한 군비를 탕진하면서 신형반함선순항미싸일개발을 계획하고있을뿐만아니라 앞으로 이 미싸일들을 군함들과 전투기들 등에 탑재하려 하고있으며 이것이 결국에는 주변국들을 겨냥할것이라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함께 인디아양과 태평양에서 주되는 역할을 놀려고 시도하고있으며 로씨야의 꾸릴렬도도 넘겨다보는 조건에서 이에 응당한 경계의 눈초리를 돌릴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옳은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실지로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의 정치군사적발판을 다져온 일본은 지금 그 실천을 위한 군사행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은 지난해 정초부터 중국남해분쟁수역에서 미핵항공모함타격단과 《자위대》함선들사이의 공동훈련을 뻔질나게 진행하였는가 하면 중국동해상공을 작전무대로 하여 항공《자위대》와 미공군사이의 공동훈련을 벌려놓으며 중국견제가 목적이라고 로골적으로 광고하기까지 하였다.

자루속의 송곳을 감출수 없듯이 군국화책동에 환장이 되여 주변나라들에 비한 군사적우세를 차지해보려는 일본의 속심은 오늘날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만일 일본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처럼 계속 놀아대다가는 다른 나라들의 공격목표가 되여 상상할수 없는 커다란 참화를 입을수 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조선의 관광

어디서나 보이는 주체사상탑

평양을 찾는 사람들은 도시중심에서 붉게 타오르는 봉화를 형상한 주체사상탑을 볼수 있습니다.

조선의 고유한 석탑건축양상을 살려 화강암으로 쌓아올린 이 탑(높이 170m)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칭송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조국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주체71(1982)년 4월에 세웠습니다.

주체사상탑은 봉화탑, 탑을 중심으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형상한 기본주제의 3인군상, 부주제군상들 그리고 탑의 량쪽에 있는 정각들, 대동강한가운데 있는 2개의 대형분수 등이 넓은 부지에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져 하나의 대건축군을 이루고있습니다.

주체사상탑의 봉화의 높이는 20m, 봉화무게는 30t, 밑의 접시대무게는 15t으로 총 45t입니다.

탑앞에 있는 3인군상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형상하고있습니다. 이들이 손으로 받들고있는것은 마치와 낫 그리고 붓으로 형상된 조선로동당마크입니다.

탑의 뒤면에 보이는 여러 나라 글자를 새긴 고급석재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 학술연구조직들, 친선단체들에서 보내온 귀중한 대리석들과 옥돌들입니다.

주체사상탑전망대에 올라가면 사람들 누구나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며 날로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한눈에 보게 될것입니다.

주체사상탑전망대에 올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여온 대리석들과 옥돌들

수풍호반 본사기자 림철명

호수가를 둘러싼 푸른 산들이 마치 어깨성을 이룬듯 하여 볼수록 장관이다.

압록강하류를 막아 건설한 수풍호는 조국에서 제일 큰 인공호수로 꼽히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882133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